"한국 체육의 미래, 학교체육 활성화에 달렸다"

"체육회에 몸담은 지 20년째인데 그 때 했던 얘기를 아직도 하고 있다. 이대로 있으면 바뀌지 않는다. 스포츠 활성화에 반드시 필요한 구심점을 만들지 못했기 때문이다."
대한체육회 이기흥 회장(63)이 대한민국 스포츠의 미래를 위한 개혁 드라이브에 시동을 걸었다.
이 회장은 2018년 한국에서 가장 바쁜 사람 가운데 하나다. 당장 눈 앞에 닥친 평창 동계올림픽의 성공적인 개최를 일궈내야 한다. 이후에도 러시아 축구월드컵, 자카르타-팔렘방 아시안게임과 창원 세계사격선수권대회 등 굵직한 스포츠 이벤트들이 줄줄이 이어진다. 동시에 체육회 통합 시대를 본격적으로 이끌어야 할 막중한 책임이 그의 두 어깨에 얹혀져 있다. 그런 그와 지난 달 29일 마주앉아 한국체육의 미래에 대한 대화를 나눴다. 그는 겸손한 듯하면서도 자신감 넘치는 화법으로 듣는 이를 들었다 놨다 하며 변화의 필요성을 조목조목 짚어냈고 논리적인 틀을 갖춰 해법도 제시했다. 시간이 얼마나 흘렀는지 조차 잊어버릴 정도로 그의 마술같은 언변에 푹 빠져들었다. 다음은 이기흥 회장과의 일문일답.

대한체육회 이기흥 회장이 지난달 29일 서울올림픽회관에서 본지와 인터뷰를 하고 있다. 최승섭기자 thunder@sportsseoul.com

데스크가 만난 사람

박현진
체육부장

엘리트-생활체육 균형 발전 위해 절실
취약한 인프라 때문에 선수 수급 어려워
스포츠 지도자 늘리고 정규직 전환 필요

선수폭행 등 올림픽 앞두고 발생한 사건
대회 모두 마치면 엄격하게 재조사할 것
재정 부담 주는 국제대회 중복투자 지양
외형적 성장도 중요하지만 내실 다질 때

- 평창동계올림픽이 코 앞으로 다가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노선영이 대표팀에서 탈락했다가 다시 복귀하고 쇼트트랙 메달 기대주 심석희에 대한 코치의 폭행 사건도 발생했다. 설상 종목에서도 꿈에 부풀었던 알파인 스키 선수들이 당연한 것으로 알았던 출전권을 확보하지 못하는 촌극이 벌어졌다. 국내에서 최고의 스포츠 축제가 벌어지는데도 불구하고 분위기가 썩 좋지는 않다. 최근의 상황을 어떻게 바라보고 있나?

대회를 앞두고 그런 문제들이 연달아 터진 것에 대해 안타까운 마음이다. 보는 시각에 따라 다르겠지만 이렇게 큰 일을 치르다보면 사람이 많이 투입되고 예상치 못한 일들이 발생할 수 있다. 특히 이번엔 갑자기 북한이 오게 되고 단일팀 구성과 공동입장 이슈 등이 겹쳤다. 그래서 꼼꼼하게 챙기지 못하고 놓친 부분도 없지 않다. 잘 추슬러 대회가 성공적으로 마무리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 한편으로는 대회 도중에 사건이 터지지 않은 것이 다행이라는 생각도 든다. 오히려 더 경각심을 갖고 잘 치러낼 수 있을 것 같다. 때로는 사소한 것들이 매우 크게 확대되는 경우도 있다. 이번 심석희 경우도 외부에 알려진 것 처럼 심각한 것은 아니라는 얘기도 있다. 지금은 일단 대회에 집중하고 모두 끝마친 뒤 엄격하게 재조사하겠다.

- 북한의 참가로 인해 평화 올림픽의 테마는 이미 성공적인 듯하다. 그러나 지나치게 관심이 북한에 쏠리면서 대회 자체에 돌아가야 할 관심이 분산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우려도 있다.

실제로 그런 우려가 현실이 되고 있다는 느낌이다. 그러나 아직은 대회가 시작되지 않은 시점이고 북한의 참가 자체가 결정된 지 오랜 시간이 지나지 않았다. 이슈가 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그렇지만 대회의 막이 오르고 멋진 승부와 좋은 결과들이 나오기 시작하면 올림픽 분위기가 달아오를 것이라고 생각한다.

- 당장은 평창 동계올림픽을 성공적으로 치러내는 것이 급선무지만 올해는 유독 대형 스포츠이벤트가 많다. 러시아 월드컵 축구에 자카르타-팔렘방 아시안게임, 창원 세계사격선수권대회까지 줄줄이 이어진다. 본격적으로 진천 선수촌 시대가 열리는 시점이기도 하다. 땀흘려 준비한 만큼 결과에 대한 기대도 클 것 같다.

지금은 모든 역량이 평창 동계올림픽에 맞춰져 있는 것처럼 비쳐진다. 그렇지만 결코 간과해서는 안될 부분이 있다. 아시안게임이 8월이니 이제 6개월 남짓밖에 안 남았다. 평창 패럴림픽까지 모두 마치고 나면 준비할 수 있는 기간은 3~4개월 정도 뿐이다. 지난해 9월 27일 태릉에서 진천으로 선수촌을 이전했다. 이번 아시안게임이 그 첫 과실을 수확하는 시기라고 할 수 있다. 그래서 이미 아시안게임 태스크포스(TF)를 가동하고 있다. 아시안게임이 끝나면 창원 세계사격선수권이 있고 내년에는 광주에서 세계수영선수권대회가 열린다. 스포츠 빅이벤트가 범어지는 것도 좋지만 이제는 시각을 조금 바꿀 때가 된 것 같다. 한국은 하계, 동계올림픽과 축구 월드컵, 세계육상선수권대회 등 대형 국제 스포츠 이벤트 그랜드슬램을 달성했다. 국제대회를 유치해 외형적인 성장에 치중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내실을 기하는 노력도 필요하다. 무분별한 유치와 중복투자를 피하기 위해 지역 인프라, 재정문제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해서 추진하도록 하겠다. 해당 종목의 발전과 도약을 기대할 수 있다고 하더라도 재정적 부담을 떠안을 수 있는 중복투자의 문제는 반드시 가려야 한다.

- 한동안 올림픽, 아시안게임 등에서 한국에 뒤처져 있던 일본의 분위기가 심상치 않다. 2020년 도쿄 올림픽에서 최고의 성적을 거두기 위해 분주한 모습이다. 특히 자카르타-팔렘방 아시안게임을 계기로 한국을 제치고 아시아 2위로 올라설 것이라는 관측도 제기된다. 수성을 위해 어떤 대책을 세우고 있는지 궁금하다.

일본이 한동안 생활체육에 집중하다가 도로 올림픽 유치를 계기로 엘리트 체육에 중점적으로 많은 투자를 하고 있다. 이번 아시안게임에서도 일본과 치열하게 순위를 다투게 될 것으로 보고 그에 대한 대책을 수립하고 있다. 1월부터 TF를 가동해 아시안게임 플랜을 준비하고 있다. 당장은 동계올림픽 때문에 전면적으로 움직일 수 없지만 흡족하지 못하더라도 주어진 여건 속에서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다. 진천선수촌에서는 하계종목 선수들이 훈련계획표에 따라 구슬땀을 흘리고 있다. 아시안게임이 결과가 바로 2020년 도쿄 올림픽으로 이어지기 때문에 일본에서는 아시안게임을 올림픽의 전초전으로 보고 많은 준비를 했다. 대놓고 한국을 이기겠다고 벼르고 있다. 많은 변수가 작용하지만 우리에게 불리한 요소가 많은 것이 사실이다. 그렇지만 일본에 뒤지는 것은 국민정서상 받아들이기가 어려운 부분이 있다. 우리도 종합2위 사수가 목표다.

- 위에서 밝힌 것처럼 일본의 최근 상승세는 2020년 도쿄올림픽을 앞두고 체육정책의 중심축이 생활체육에서 다시 엘리트체육 쪽으로 옮겨졌기 때문이라는 분석이 있다. 반면 엘리트 체육을 육성해 꾸준히 국제대회에서 좋은 성적을 유지했던 한국은 통합체육회 출범으로 인해 예전만큼 엘리트 체육에 집중하기 어려워졌다. 일본의 사례가 시사하는 부분이 있을 듯하다.

통합이 됐기 때문에 생활체육에 더 비중이 실리고 엘리트 체육의 비중이 줄어드는 것은 아니다. 통합의 취지는 각자의 위치에서 시너지를 내자는 것이다. 전문체육은 그동안 해왔던 투자를 지속적으로 유지하면서 국위선양을 할 수 있도록 할 생각이다. 문제는 원활하게 선수수급이 되지 않기 때문에 전문체육이 점점 어려움을 겪게 된다는 것이다. 예전처럼 전문스포츠로 유입되는 인구가 없다. 한 자녀 가정이 갈수록 늘어가고 있는데 하나 뿐인 자식에게 운동을 시키지 않으려 한다. 그 부분이 어렵기 때문에 좋은 선수 자원이 나타나지 않는 것이다. 결국은 스포츠 인프라가 취약하기 때문이다. 그런 문제의식을 바탕으로 새로운 방향을 모색하고 있다. 지금까지는 소수에 집중투자해 결과를 얻어냈다. 그 소수의 자원을 확산시켜야 한다. 생활체육은 모든 국민이 언제 어디서나 운동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갖추도록 지속적인 투자를 해야 한다. 운동을 통해 겪을 수 있는 효과는 이미 여러 방면에서 의학적으로 검증이 됐고 자료도 많다. 운동하는 사람들이 병원에도 덜 간다. 의료보험에 소요되는 비용이 줄어든다. 국민 복지 차원에서 투자가 아깝지 않다. 시스템을 갖춰놓으면 그 결실을 모두가 누릴 수 있다.

- 양쪽의 균형을 맞추면서 발전하는 것은 그리 간단한 문제가 아니다.

전문체육과 생활체육의 연결고리가 있다. 양쪽이 다 잘되기 위한 기본은 학교체육이다. 학교체육이 제대로 뿌리를 내려야 공부하면서 운동하는 학생, 운동하면서 공부하는 학생을 만들 수 있고 이들이 사회로 진출하면서 생활체육과 전문체육으로 확산된다. 지금은 교내 스포츠클럽 활성화를 추진하고 있는데 이 사업보다 더 중요한 것은 스포츠 지도자 수를 늘리는 것이다. 전국 5800개 초등학교에서 정기적으로 활동하는 스포츠 관련 방과후 교사는 2100명 정도에 불과하다고 한다. 토요일 오후에 잠깐 스포츠클럽을 운영하는 강사가 5500여명이다. 이 정도로는 턱도 없이 부족하다. 초등학교 기준으로 작은 학교는 1명, 대도시의 경우 한 학년에 최소 2명 정도, 학생수가 많은 곳은 3~4명 정도는 있어야 실질적인 스포츠 활동이 가능하다. 그러나 토요일만 근무하는 비정규직 강사들이 어떻게 정상적으로 생활을 하겠나. 국가가 나서서 이들을 정규직으로 전환시키고 학생들을 지도하게 만들어야 한다. 초등학교에만 최소 2만여명의 운동강사가 필요하다. 5000여명이 추가로 투입되면 중고교까지 커버할 수 있다. 이들이 어떤 이름으로든 안정적인 일자리를 갖게 되면 아이들을 가르치게 돼있다. 놀면서 월급을 받지는 않을 것 아닌다. 운동하는 아이들을 모으게 되고 자꾸 프로그램을 만들게 된다. 운동을 정말 좋아하는 학생들은 전문형 스포츠 클럽으로 이끌 수 있다. 학생들의 건강에만 도움이 되는 것은 아니다. 스포츠를 통해 협동심과 단결력을 키우고 결과에 승복할 줄 아는 자세와 좋은 인성, 민주적인 소양을 갖춘 아이들로 키울 수 있다.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해서도 중요한 일이다. 그러나 지금 같은 구조에서는 혼자서 1000명이 넘는 학생들을 지도하는 사례도 나온다. 행정처리만 하기에도 벅차다. 교원자격을 줄 수 없더라도 신분이 안정되게 정규직으로 학교에서 일할 수 있게 만들면 된다. 그러면 이들이 직업의식을 갖고 부정부패에 휘말리지 않으며 공정성과 투명성을 찾아가게 될 것이다. 이는 정부의 일자리 창출 정책과도 부합된다.

- 결국은 재원을 어떻게 마련하는가가 관건이 아닐까. 이 부분은 체육회의 재정자립과도 연결돼 있는 문제인데.

지금 기간제 교사들이 170~180만원 정도를 받는다고 한다. 교육부가 80%, 문화체육관광부가 20%를 보태서 운용하는 것으로 들었다. 이런 방식으로는 안된다. 그런데 스포츠토토 수익금을 투입하면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 있다. 스포츠를 통해 마련된 자금을 스포츠에 투자한다는 명분도 있다. 그동안 스포츠토토 수익금으로 월드컵경기장을 지었고 평창 동계올림픽 인프라를 갖추는데도 투입됐다. 그러나 당분간 그런 빅이벤트에 투자할 일은 없다. 그렇다면 스포츠토토 수익금을 체육을 위해 쓸 수 있는 여지가 생긴다. 대한체육회는 스포츠토토 수익금의 약 30% 가량을 분배받고 있는데 그 비율을 20% 늘리면 충분히 비정규직 체육강사들의 정규직 전환을 끝어낼 수 있다. 체육회에 자금을 달라는 얘기가 아니다. 교육부가 해도 되고 문화체육관광부가 맡아도 된다. 기획재정부에서 직접 집행해도 문제는 없다. 주체가 누가 되더라도 그런 방향으로 투자해 달라는 것이다. 토토 수익금의 20% 정도를 10년 정도 지속적으로 투자하면 그 이후에는 자생적으로 선순환 구조가 이뤄질 수 있다. 인프라에 투자하고 이를 활용해 다양한 스포츠클럽을 만들고 활성화시키면 생활체육이 자리를 잡는다. 독일은 1만원 정도의 비용만 내면 마음껏 운동할 수 있는 스포츠클럽이 11만개 정도가 된다. 우리나라는 지금 1600만 가구로 추산되는데 전체 가구수의 0.7%만 스포츠클럽에 참여해도 1000만명이 넘는다. 가구당 연간 5만원 정도를 스포츠활동에 투입한다고 하더라도 5000억원이 넘는다. 충분히 시스템으로 만들어 갈 수 있다. 이미 국내에서도 파크골프 등은 회비를 받아서 운영자금을 모두 충당하고 있다. 학교체육에 지도자를 공급해 안정된 일자리를 만들어내는 것이 장기적인 로드맵의 출발점이다. 이게 체육회가 제시한 '어젠더 2020'의 핵심이다. 선진형 시스템을 갖추기까지 10년만 투자하면 된다. 그 뒤로 10년 정도를 회원제로 가는 과도기로 삼으면 20년 뒤에는 별도의 재정지원 없이 완전한 회원제로 스포츠클럽 활동이 가능해진다. 그만한 가치가 있고 반드시 해야 한다. 그래서 평창 동계올림픽이 끝나면 체육진흥법 개정을 통해 스포츠토토 수익금 분배 방식을 개선하기 위한 입법 발의를 하려고 한다. 체육인 100만명 서명운동을 진행하고 있고 4월 중에는 국회에 제출할 생각이다.

- 체육회 통합 1년여가 지났다. 긍정적인 신호를 보내오는 부분도 있을 것이고 반대로 부작용이 생긴 부분도 있을 것이다. 냉정하게 통합체육회 출범이 어느 정도 효과를 거뒀다고 평가하는지.

그동안 (대한체육회와 국민생활체육회가) 따로 떨어져서 자기주장만 내세웠는데 이제는 하나가 됐기 때문에 상호협력하고 시너지를 내는 방향으로 가야 한다. 학교체육이 안되면 선수 공급이 어려워진다. 전문체육이 성과를 내지 못하면 생활체육의 붐업이 어렵다. 정현이 잘하니까 테니스 붐이 일지 않나. 생활체육도 학교체육이 잘돼야 효과가 있다. 합쳐야 한다. 독주보다 합주를 해야 훨씬 선율이 좋아진다. 그동안 양 단체를 통합하면서 있었던 갈등은 얼추 정리했다. 내부적으로는 어느 정도 안정을 찾아가고 있으니 올해는 체육회 구성원 모두가 자긍심을 가질 수 있도록 내실을 다지고 정부, 각 경기 단체, 각 시도 체육회 등과의 관계를 더 긴밀하게 만들어갈 차례다.

- 굳게 닫혔던 남북 체육교류의 문이 평창동계올림픽을 계기로 활짝 열렸다. 결국은 스포츠가 단절됐던 남북의 곤을 잇는 얼쇠가 됐다. 이런 분위기를 이어가는 것 또한 체육계의 몫이다. 어떤 청사진을 갖고 있는지 궁금하다.

평창 대회 참가와 관련된 세부 사항을 조율하기 위해 북측 민족올림픽위원회 김인국 체육상을 만났다. 내후년인 2020년이 체육회 출범 100주년인 만큼 함께 역사를 발굴하고 정례적인 교류를 해보자는 얘기를 나눴다. 남북 체육회는 1920년 출범 당시에는 같은 뿌리(조선체육회)였다. 학습세미나, 청소년 상호 교환방문, 경평축구 부활 같은 다방면의 교류를 통해 남북화해는 물론 동질성을 회복하는 방향으로 갈 수 있도록 노력하자고 했다. 그쪽에서도 동계스포츠 교류에 대한 그림에는 큰 관심을 보였다. 이번에 마식령 스키장에서 합동훈련도 실시한 것처럼 우리 기술지원을 할 수 있는 부분도 있고 평창의 쎌매시설을 북측에도 제공해 베이징 동계올림픽에 대비할 수 있도록 하는 방법도 있다. 양측이 모두 있는 시설을 활용할 수 있고 거리도 가깝지 않나. 아침에 가서 훈련하고 돌아올 수도 있다. 남북 체육교류가 확대된다면 역사발굴과 편찬, 세미나, 동계종목 합동훈련 등이 출발점이 될 것이다.

- 체육회장 취임 이후 가장 잘 했다고 생각하는 것과 가장 후회스러웠던 순간을 꼽아달라.

돌아보면 특별히 잘했다고 내세울 것도 없지만 크게 잘못한 것도 없었던 것 같다. 그러나 평가는 지금 내리는 것이 아니다. 그저 주어진 여건 하에 매순간 최선 다할 뿐이다. 지금은 보이지 않더라도 임기가 끝날 때쯤 뒤돌아보면 담아라도 하나 쌓지 않았겠나. 많은 고민을 하고 당사자들의 처지와 상황을 나름대로 들여다보면서 일한다. 벽돌을 하나하나 쌓아가는 기분으로 최선을 답을 찾기 위해 애쓰고 있다.

- 역대급 스케줄을 소화하면서도 언제나 열정이 넘치는 모습이다. 건강을 유지하는 비결은?

마음을 편하게 먹는 것이 비결이라면 비결이다. 주어진 일을 엄심히 하되 마음 속에 가둬두지 않는다. 좋은 것도 영원하지 않고 나쁜 일도 오래가지 않는다. 아무리 바빠도 주말에 꼭 한 번 이상 등산을 한다. 혼자 산에 오르면서 호흡을 가다듬고 시원한 바람을 쐬며 맺혀있던 응어리를 다 털어낸다. 틈 날때마다 절에도 다니고 집에서도 짬을 내 조금씩 명상을 한다.

jin@sportsseoul.com

〈프로필〉

▲출생년월일=1955년 1월 3일
▲출생지=충청남도 논산
▲출신학교=용인대 명예 체육학 박사, 동국대 명예 철학 박사
▲경력=대한근대5종연맹 부회장(2000.9)
대한카누연맹 회장(2004.4)
대한올림픽위원회(KOC) 상임위원(2004.4)
제36, 37대 대한체육회(KOC) 부회장(2005.1, 2009.3)
제25·26대 대한수영연맹 회장(2010.1, 2013.1)
제16회 광저우아시아경기대회 대한민국 선수단장(2010.11)
제30회 런던올림픽대회 대한민국 선수단장(2012.5)
아시아수영연맹(AASF) 부회장(2012.12)
제38대 대한체육회(KOC) 수석부회장(2013.3)
대한체육회 체육발전위원회 위원장(2013.12)
대한체육회·국민생활체육회 통합추진위원회 위원장(2015.4)
세계수영연맹(FINA) 집행위원(2016.1)
제40대 대한체육회(KSOC) 회장(2016.10~)

스포츠서울_한국 체육의 미래, 학교체육 활성화에 달렸다_2018-02-05.jpg
(2231 X 2930)